

# 경북도, 포스트 APEC 시대 ‘3대 성장축 전략’ 추진 본격화

韓 주도 ‘아·태 AI 센터’ 유치  
‘경북 글로벌 CEO 서밋’ 창설  
국제 공동창작 플랫폼 구축도

경북도는 APEC 2025 KOREA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축적한 국제 네트워크와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연결해 국제협력, 산업전환, 혁신생태계가 아우러진 글로벌 혁신경제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경북은 APEC을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 무대에 올랐다. 1700여명의 세계 경제인을 비롯해 3만 명이 경주를 찾았고, 13조 8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7조 4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록하며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경북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APEC 의제와 연계한 지역 특화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산업과 경제구조 변



지난 19일 개최된 포스트 APEC 추진 전략 보고회.

화를 이끌 ‘3대 성장축 전략’을 본격 추진해 포스트 APEC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성장축은 ‘아·태 AI 센터’ 유치 전략이다. APEC 정상들은 AI를 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APEC AI 이니셔티브’를 채택했으며, 한국이 주도하는 아·태 AI 센터 설립을 공식화했다.

포스텍을 비롯해 한국로봇융합연구

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제조업R&D 지원센터 등 세계적 연구기관이 집적된 산학연 협력 생태계 역시 경북의 강점으로 꼽힌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AI 윤리, 표준, 정책, 인재양성 등 AI 국제논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아·태 AI 센터를 유치해 글로벌 AI 공동체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다.

두 번째 성장축은 ‘경북 글로벌 CE

O 서밋’ 창설이다. 경북도는 APEC 개최로 국제도시로 부상한 경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CEO, 산업 전문가, 정책 리더들이 참여하는 상설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서밋은 교류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투자유치와 산업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성장축은 ‘APEC 퓨처스퀘어’ 조성이다. 경북도는 APEC 성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해 경주엑스포대공원 일원에 개방형 국제 공동창작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공간에는 디지털휴먼, 3D 콘텐츠 제작 인프라, AR·VR·MR 융합 장비 등 실감형 콘텐츠 제작 시설이 들어선다. 이를 기반으로 APEC 회원국 대상 공동창작 지원과 국제협업 프로그램, 인력 교류 확대 등 글로벌 창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대구시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 1위

대구시가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에서 취업률 67.8%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55.2%보다 12.6%p 높은 것으로 전년도 65.3% 대비 2.5%p 상승했고, 전국 평균은 지난해 대비 0.1%p 소폭 하락한 반면, 대구는 2.5%p 올랐다.

특히 진로 미결정자 비율이 1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현장 중심 직업교육 정책과 지역사회·산업계와 협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 철곡군

#### 한끼분량 ‘프리미엄 철곡 할매쌀’

경북 철곡군이 두유처럼 한 팩씩 뜯어 쓰는 소포장 프리미엄 쌀을 선보였다.

‘프리미엄 철곡 할매쌀’은 한 끼 분량(300g)을 진공 포장해 음료수 팩처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칼집을 따라 잘라 밥솥에 붓기만 하면 된다. 1·2인 가구의 생활 패턴에 맞춘 것이다. 품종은 ‘미호쌀’이다. 윤기와 탄력이 좋아 전체적인 밥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팩 기준 3인분이다. 20팩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는 한달치 식량이 된다.

/철곡(경북)=김준한 기자 kih9@

### 정읍시

#### 260곳에 ‘안심 불빛’ 설치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어두운 골목길과 생활 주변 취약지에 ‘안심 불빛’을 설치하는 사업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올해 읍·면·동에서 접수된 위험지역 260곳에 총 4억원을 투입해 고효율 LED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정비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야간 보행 안전 강화와 함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노린 정읍시의 주요 생활 안전 인프라 개선 정책으로 꼽힌다.

시는 LED 교체·설치가 마무리되면 어두운 골목과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야간 범죄 예방에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전북)=양수영 기자

### 영덕군

#### 내년도 본예산 6136억 편성

영덕군(군수 김광열)이 2026년도 영덕군 본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5억원 줄여든 6136억원으로 편성했다. 군은 재정 운용에 부담을 준 지난 3월 경북 산물의 여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으며, 관행적인 행정 경비를 과감히 줄이는 한편,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고흥군, 1.6조 투입해 글로벌 우주산업 허브 조성

2031년까지 24개 핵심사업 추진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등 조성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기지를 품은 전남 고흥군이 뉴스페이스 시대 글로벌우주항으로 도약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2월 이 지역을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했다. 2031년까지 총 1조 6084억원을 투입,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민간 발사장·기술사업화센터 등 24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 봉래면 예내리 일대에 1753만㎡ 규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3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발사체 기업 입주 공간과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시설 부지 구축을 골자로 한다. 38개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민간 투자가 이



고흥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감도.

여지고 있다.

국내 상업 발사 서비스시장 개척에 기여 할 민간발사장과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설립에도 2030년까지 1480억원을 투입한다.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국가 안보와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방위성 전용 발사시설 구축도 추진 중이다. 민간기업의 다양한 발사체 엔진 개

발 지원을 위한 엔진연소시험시설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인재양성과 우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조성한다. 대한민국 우주 역사를 전시하고 우주과학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우주산업 생태계의 또다른 전환점이 될 제2우주센터 건립도 국정과

제로 반영됐다. 전남도는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재사용 발사장을 포함한 첨단 발사장을 갖춘 제2우주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주산업 기반이 되는 SOC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고흥~광주 간 고속도로의 경우 정부의 제3차 국가고속도로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는 한편 경전선 별교역에서 지선을 연결하는 우주선 철도도 구상중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주변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연구개발·시험평가·인증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펼쳐 우주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KTX 경주역’ 역세권 개발 추진 속도

투자선도지구 지정신청서 제출

KTX 경주역 역세권 개발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시작하며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주시는 경북도와 함께 ‘경상북도 경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역세권 개발의 첫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경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는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KTX 경주역 주변을 경주의 새로운 도시 거점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다.

개발 면적은 약 29만평(96만 1,000㎡)이며,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함께 들어서는 새로운 생활권으로 조성될 예

정이다. 총사업비는 5,096억원이며, 이중 5,041억원은 민간 투자로 마련된다.

경주시는 공모 선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 환경·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등 필수 절차를 순차적으로 완료하며 사업 기반을 다졌다.

지정 절차는 경북도지사가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계 부처 협의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다음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승인 ▲2028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2029년 토지보상 착수 ▲2033년 부지조성 준공 등 단계별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 26만명 방문

전년대비 49% 늘어… 최대실적

올해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에 전년대비 49% 증가한 26만 명이 방문했다.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7~10월 운영한 2025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에 약 26만 6000명이 방문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제작년 대비 6배(624%) 이상 증가한 수치며 전년의 17만 9000명보다 49% 증가했다.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확대된 프로젝트다. 초기 소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연중 브랜드 행사로 성

장하며 야간관광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참여 규모도 빠르게 늘었다. 2023년 3만 6000명이던 방문객은 2024년 17만 9000명, 올해 26만 600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1개 콘텐츠가 248회 운영돼 부산 전역에서 다양한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초기에는 용두산공원과 수영강 일대 등 비전형적 공간에서 MZ세대 취향 프로그램을 소규모로 선보였으나,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검증된 콘텐츠는 상시 프로그램으로 확대됐다.

행사장은 기존 해운대·광안리 중심에서 용두산공원, 대대포 해변공원, 화명생태공원, 부산시민공원 등으로 넓어졌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